

또 깜짝·밀봉인사... 탕평보다 보수색채 강화

박근혜 당선인 2차 '조각' 인선 발표

관료 출신 대거 등용해 전문성 추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3일 2차 인선 발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입기자들의 혀를 찼다. 이번 2차 인선은 청와대 비서진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비서진 발표는 전혀 없이 부부 조각이 이뤄졌고 '철통보안'과 '깜짝인사'가 재연됐다. 또 보수색이 강화되고 관료 출신이 우대됐다는 평가다.

박근혜 2차 발표를 예고하자 대 부부 언론은 청와대 비서진 등 청와대 인선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아직까지 청와대 비서진 인선은 전혀 없는 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각 발표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 전망이었다. 다만,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문에 내각의 외교안보 라인 정도는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은 단 한 명의 청와대 비서진 발표도 없으면서 빗나갔다. 특히 내각의 외교안보 라인 외

에 교육·법무·안전행정·문화체육관광 장관 등 내각 인사까지 발표한 것은 그야말로 '혀를 찌른' 인선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번 부부 조각 발표에서는 박 당선인 특유의 인사 스타일인 '철통보안'이 재연됐다. 평가가 나온다. 국무총리 후보자 등을 발표한 지난 8일 1차 인선에서는 언론의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데 발표 전 내각자가 공개됐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들로 발표 1시간 전까지도 발표 범위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날 발표된 6명의 장관 내각자가운데 외교부 장관에 내정된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유정복 의원을 빼고 나머지 4명은 예상 외인 '깜짝 인사'로 평가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유

진통 문화부 장관 내정자 등은 그동안 언론이 예상했던 각 부처 장관 후보군에 거의 올라와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2차 인선의 또 다른 특징은 보수색 강화 및 관료 등용을 통한 전문성 추구에 정리된다.

우선 서 내정자와 윤 내정자는 각각 20년과 30년 동안 해당 분야에 종사해온 전문가들이다. 또 유정복 내정자는 3선 의원이지만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기도 기획담당관과 김포군수, 김포시장 등 지방행정을 오랜 기간 담당해 왔다. 2010~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유진통 내정자 역시 행정 출신으로 문화관광부 문화수업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차관을 거친 정통문화 및 언론 분야 관료 출신이다.

황 내정자와 김 내정자의 경우, 보수색 강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황 내정자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낸 정도로 공안 업무에 정통한 공안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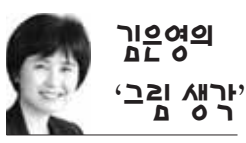
김 내정자는 지난해 대선 기간 박 당선인을 지지 선언하면서 안보 조인 그룹에 합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를 마치고 인수위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봄이 오면 옛 선비처럼 매화 찾아 여행 하고파



17 탐매(探梅)



전기 작 '매화서옥도'

입춘이 지났는데도 이어졌던 한파 특보와 눈보라가 계절감을 잃게 한다. 그래도 이 겨울 속에서 봄이 느껴지는 것은 금방이라도 꽃망울을 터뜨릴 것 같은 매화꽃 눈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토록 흑흑한 추위를 견뎌낸 매화가 꽃피는 것을 보면 기적 같다. 옛 선비들이 매화가 핀 경치를 찾아 떠나는 '탐매' 여행을 즐긴 까닭도 이 때문이다. 마른 가지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힘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전기(田琦 · 1825~1854)의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는 꼭 요즘 분위기가. 잠시 따스한 봄기운에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한 매화, 그 며칠 사이로 눈이 내렸던 듯 온 천지에 눈이 소복이 쌓여있다. 한 겨울과 이른 봄이 공존하는 깊은 산골짜기 작은 집에 한 선비가 앉았다. 선비는 서재에서 읽던 책을 덮고 매화를 보다가 곁에 있는 피리를 집어 들었을 것이다. 다리 위에는 붉은 점으로 묘사된 이가 거문고를 메고 벗을 찾아간다. 천축에 갇힌 듯 절경

속 완벽한 단절은 벗의 방문으로 활기를 띤다. 매화꽃잎들은 곧 있으면 연주될 친구들의 이층주로 가장 화사한 봄을 맞이하리라. 전기는 약포를 경영하던 중인 출신으로 추사 김정희의 문하에서 서화를 배웠다. 체구가 크고 빼어나며 인품이 그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추사와 중에서도 사의적인 문인화의 경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묘사했던 인물로 추앙받았으나 29세로 요절해 참으로 안타깝다.

한국미술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서이 작품을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겼다. 자연, 봄, 매화, 벗, 음악... 더불어 즐기곤 했듯이 한 화면에 다 들어있어서였던 것 같다. 봄이 오면 옛 선비처럼 '탐매' 행을 하고 싶다. 활짝 핀 매화꽃이 봄바람에 날리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환율하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

서남수 교육장관

- 출신지역(나이): 서울 출생(61)
- 학력: 서울고, 서울대 철학과
- 현직: 위덕대 총장, 서울정책재단이사
- 주요경력: 행정고시 22회, 문교부 행정사무관, 교육부 교육정책총괄과장,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과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윤병세 외교장관

- 출신지역(나이): 서울 출생(60)
- 학력: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 현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
- 주요경력: -외무고시 10회, -청주엔 참사관, -외무부 북미과장, -합미공사, -외교통상부 차관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

황교안 법무장관

- 출신지역(나이): 서울 출생(56)
- 학력: 경기고, 성균관대 법학과
- 현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주요경력: -사법고시 23회, -청주지법 검사, -대검 공안1과장, -서울지법 공안2부장, -외교통상부 차관보, -부산고검장

김병관 국방장관

- 출신지역(나이): 경남 김해 출생(65)
- 학력: 경기고, 육군사관학교 28기
- 현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대장)
- 주요경력: -6포병여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2사단장(소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소장), -7군단장(중장), -1군사령관(대장)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 출신지역(나이): 인천 출생(56)
- 학력: 제물포고, 연세대 정외과
- 현직: 17·18·19대 국회의원(경기 김포, 새누리당), 18대 대통령직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 주요경력: -행정고시 23회, -인천시 서구청장, -김포시장(한나라당),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한리당 제1 정책조정위원장, -동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진통 문화체육관광장관

- 출신지역(나이): 인천 출신(57)
- 학력: 서울고, 서울대 무역학과
- 현직: 가톨릭대 한류대학원 초대원장
- 주요경력: -행정고시 22회, -문화공보부 행정사무관, -문화체육부 문화정책과장, -문화관광부 공보관, -문화관광부 차관, -을지대 여가디자인학과 교수

행정고시 22회로 1979년 교육부 전신인 문교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 대학업무와 정책기획 부문에서 요직을 맡았으며, 2007~2008년 참여정부 마지막 교육차관을 지냈다.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풍부한 아이디어와 과감한 추진력을 갖췄으며, 업무를 세심하게 챙기고 공사구분이 분명한 원리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장, 외교부 차관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대표적 외교안보통. 지난 2010년 1월27일 박근혜 당선인의 싱크탱크로 출범한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분야 핵심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밑그림을 그렸다.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춘 '공안통'으로 꼽힌다. 원칙을 중시하고 꼼꼼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공안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고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낸 정도로 공안 업무에 정통한 학구파다. 지난 2005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원-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한미 군사관계에 정통한 인물로 꼽힌다. 육사 수석 입학과 수석 졸업을 할 정도로 학구파다. 참여정부 시절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뼈가 대인 한미관계 속에서도 당시 버릴 벨 연합사령관과 전폭적인 신뢰관계를 맺어 양국 현안을 무리 없게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경청한 후 대안을 제시하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새 내각에 임각한 몇 안되는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다. 정통 내무관료 출신으로, 밀바라 부터 행정경험을 쌓았다. 박근혜 당선인이 한나라당 대표직에 있었던 2005~2006년 비서실장을 지냈다. 신중하면서도 조용한 스타일로 허리가 치밀하다는 평가를 들어왔다. 입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평가도 있다.

문화행정으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이지만 일에는 철두철미하며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로 잘 알려졌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아랫사람의 의견을 중시하지만 추진력과 협상·조정력이 뛰어난다는 평가다. 문화부 재직시 부내 인기투표 때마다 1위에 올랐을 정도로 조직 내 신망도 두텁다.

빛의만평

- 김중두

봄來不似春 (춘래불사춘)

롯데제이티비는 롯데그룹의 Global 여행 기업입니다.

여행문의 1577-6511

이달의 우수대리점 금남로점 062) 228-6644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 062) 228-6644

무안출발 북경 북경 실속 상품 북경/만리장성+서커스 4/5일 329,000원부터

무안출발 북경 면산 북경-태원 열차관광 북경/태원/평요/면산* 4일 709,000원부터

무안출발 장가계 장가계 "직항 전세기" 특선 장가계/천문산* 4/5일 859,000원

무안출발 터키 고품격 터키일주 상품 터키 일주 8일 1,849,000원부터

유럽 A380항공 두바이관광 후르가다 글레스포트 탑승 CJ 오스프 HIT 상품! 1,890,000원부터

서유럽 6개국 정통1급+윙프라이우 12일 3,290,000원부터

동남아 홍콩아열일주 2층 버스탑승+점보식 업그레이드 4일 499,000원부터

중국/괘사이판 장사/장가계/원가계 4월/5일/6일 649,000원부터

미주/남태평양 미주부 6월 7/8/9일 109,000원부터

SIT 로열캐리비안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푸켓 4일 1,390,000원부터

신규대리점 OPEN! 062) 611-8875

하남점 062) 611-8875

●광주권: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 천안,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점, 롯데마트 수원, 북구점, 기아점, 백운점, 구시창점, 양동점, 상무역점, 문화전당점, 서구청점, 매월점, 광산점, 농성점, ●전남권: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 목포점, 광양점